이 력 서

성명	곽문혁	주민등록번호	
		65	
생년월일	1965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	비고
			관련 학력	
1993	9	5	부산대학교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시설장양성과정 수료	보건사회부장관
2011	2	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총장
2016	8	11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 석사 학위	고신대학교 총장
			어린이집 경력	
1991 1993	5 12	30~ 23	피터팬어린이집 원장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357-7	
1994 2026	5 1	10~ 8 현재	수연어린이집 원장 /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18번길 7-21	주소지 변경 생략
			관련활동 경력	
1995 1996	2 2	10~ 12	부산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 금정구 지회장	
1996 2003	3 2	10~ 28	부산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 부회장	
2011 2013	3 2	2~ 28	부산시어린이집 연합회 민간분과 위원회 상임위원	
2013 2015	3 2	15~ 28	부산시어린이집 연합회 민간분과 수석부위원장	
2013 2014	5 2	11~ 28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 정책위원회 위원	
2014 2016	4 2	23~ 28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 정책위원회 간사	
2015 2017	3 2	1~ 28	부산시어린이집 연합회 제13대민간분과 위원장	
2017. 2017	3. 11	1~ 6	부산시어린이집 연합회 제14대민간분과 위원장	
2016 2017	3 11	24~ 6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 부회장	
2016 2017	3 11	24~ 6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 정책위원장	

2017 2018	11 2	7~ 28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제7대 잔여
2018 2019	3 1	1~ 현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제8대
2015 2018	4 12	13~ 31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	
			포 상 경 력	
1997	12	16	금정구청장 표창장 수상	
2009	05	23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2012	11	15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수상	
2020	02	26	보건복지부장관 상장 수상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01.08

위 본인 곽문혁 (인)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마의 변

- 보육을 교육정책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

부산 보육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보육 현장은 그 역할과 수요에 비해 정책과 예산, 결정 구조에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제 보육인은 교육 행정의 주변이 아닌, 당당한 교육의 주인으로 자리해야 합니다. 그 출발은 어린이집 본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그 힘은 하나로 움직이는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저는 국공립·법인·가정·민간·직장 등 분과 간 공동의 철학과 방향으로 부산 보육·교육 전체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감정이 아닌 정책으로 말하고, 호소가 아닌 실질적 사전 협의력과 영향력으로 구조를 바꾸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부산 보육 정책은 그동안 모든 분과를 존중하려는 노력 속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분과의 역할과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공평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으로, 분과별 어려움을 차분히 풀어가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 정책 구조 속에서 어린이집의 기본 철학을 관철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체 영유아 보육 수요의 약 70%를 담당해 온 어린이집의 역사성과 현장성, 영아·돌봄 중심 전문성은 교육청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달식 정책에 끌려가는 현장이 아니라, 현장이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삼겠습니다.

첫째, 유보통합은 대등한 통합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영아·종일·돌봄 전문성이 유치원 중심 구조에 흡수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의 정체성과 역할을 교육·보육정책 언어로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둘째, 연령별·지역별 지원 격차를 바로잡겠습니다. 영아반, 외곽·취약지역, 각 분과가 안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평등이 아닌 공평의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셋째, 회원 권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행정 부담과 제도 변화 앞에서 개별 어린이집이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연합회가 조정자이자 보호막이 되어 현장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축적해 온 영아·종일·돌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교육입니다. 저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도전을 통해 전국 보육·교육 정책의 흐름과 구조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보육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대한민국 보육 정책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주체의식을 갖고 연합회가 하나로 설 때, 부산 보육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보육의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보육인 전체가 존중받는 보육행복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어린이집회장 후보 곽문혁